2016년 주요 시책

목 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방 침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

주 요 시 책

1.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2. 친환경·고소득 농수산업 기반 확대
3. 매력있는 관광·문화 전남 실현
4.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SOC 확충
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6.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7. 소통과 신뢰의 선진 도정 구현

1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업과 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제공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주력산업의 활로 찾기 지원
-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산업 육성
-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1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면서 신성장 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기업과 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 목표

• 고용률 68% • 취업자 수 10천명(청년 취업자 수 3천명) 증가

□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일자리 목표 관리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운영(일자리 목표 90천개)

○ 지역 고용여건을 진단,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인력양성 설계·컨설팅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신설(5월)

- 고용 전문관 채용(3명), 지역 고용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정규직 전환 이후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기업에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시행

- 취업장려금(1년차) 500만원, 고용유지금(2년차) 300만원, 장기근속금(3년차) 400만원

○ 대학 내에서 직접 취·창업정보를 얻고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운영(1개→2개 대학)

○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학업취득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확대(1개→3개 과정)

□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에너지・ICT・전기제어 등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140개 과정, 4천명)

- 교육과정 수료 후 미취업자 사후관리시스템 별도 운영, 취업률 70% 달성

○ 대학과 기업체가 협력,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운영

- 조선해양·식품산업 등 6개 과정, '20년까지 20개 과정으로 확대

○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3개) 조성

□ 구인·구직 매칭 강화

○ '전남 일자리종합센터'가 구인・구직 정보제공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청년취업지원단 등 운영

○ 구직 청년들이 구인기업(3~5개사)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면접-채용으로 연결되도록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확대 운영(3→10회)

- 채용목표 300명 이상, 면접 중심의 '잡(Job) 매칭데이' 연계 운영(3회)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초기) 창업컨설팅 → (정착) 인큐베이팅 → (성장) 세무·노무 등 경영코칭

○ 제품 판로 확대, 신용보증상품 운용 등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 (공공시장) 공공구매 공시제 대상기관을 도, 시·군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 운영
- (민간시장) 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동 판촉전 개최(10회), 공동브랜드 개발

○ '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 등 브랜드시책과 연계한 신규모델 발굴과 공공기관 구매 가능한 분야 등 틈새영역의 기업 육성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치 목표

- 기업유치 275개사
- 투자실현 150개사(고용 4,500명)

□ 국내·외 타깃기업 집중 유치

○ 대기업, 중견기업, 향우기업, 기술형 강소기업 중심으로 잠재적 투자가 확대 발굴('15년, 2,000개사 → '16년, 2,500개사)

○ 타깃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심층적인 유치전략을 수립, 기업설명회(IR) 집중 전개(국내 100회, 해외 8회)

- KOTRA 컨설팅과 연계, 해외합작 희망 국내기업 공동 기업설명회 추진

□ '에너지밸리'에 에너지신산업 중심기업 유치

○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330만㎡ 규모)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종합계획 수립(5월, 미래부 신청)

○ 기업 유형별로 특화 업종에 기반한 투자유치 전개('16년 60개 목표)

- (**대기업**)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해상풍력, 초전도 (**해외기업**) 전력변환장치(PCS) (**중견·중소기업**) 태양광, DC배전 (**연구소기업**) 전력 ICT 솔루션, IoT 등

□ MOU 체결기업 사후관리 강화

○ MOU 체결 후 투자이행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의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 기업 'PM 견문제' 운영 활성화

○ 투자 실현율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기업의 날 지정 등 '투자실현기업 氣살리기' 추진

- 분양률이 저조한 산단과 미분양 농공단지 등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를 분양가의 30% 범위 내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기준 완화(300명 → 100명 이상 고용)

3 주력산업의 활로 찾기 지원

□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단순 제품 위주의 석유화학 소재를 고기능·고성능 첨단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광양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132억원, 설계 및 착공)
- 순천 해룡산단,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61억원, 설계 및 착공)

○ 철강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금속가공기술 축적 및 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원

- 고기능성 금속소재 가공 기반구축 용역(3월 완료) 결과를 토대로 예타 신청
- 미래 신성장동력 CO_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17년 국비 반영 건의)

□ 조선해양산업의 다각화

○ 특화·레저선박 제작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구축

- 100피트급 대형요트 개발('16. 8, 기본·생산 설계, 13억원)
-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17년 사업착수)

○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사업화 지원

-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69억원, 완공 및 장비 구축)
- 중소 조선해양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8억원, 20개 기업)

□ 주력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 해룡산단에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10월, 40억원)

○ 생산원가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양제철소~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망 해저터널' 구축(SPC 설립 및 착공)

○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융·복합을 위해 석유화학기반의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30억원, 설계 및 착공)

4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산업 육성

□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 전기자동차 및 핵심 부품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산업 및 관련 부품기업 유치, 혁신산단 내 '에너지 실증센터' 구축
- 나주시를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춘 '에너지시티' 모델로 조성

○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 조성('17년 4개→'20년 29개→'25년 50개)

- 디젤발전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자동차 → 전기자동차로 대체

○ 산업단지 에너지 절감 및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캠퍼스 구축

- 대불·여수 산단의 전력 소비량을 '25년까지 30% 절감(태양광, 폐열 재활용)
- 열+전기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캠퍼스 구축(동신대, '15~'18년, 150억원)

○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14년 3.74%→'25년 30%)

- 육상풍력 100MW 시범사업 준공(12월), 해상풍력 500MW 시범사업 착수('16~'20)
- 공공기관, 민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 생물의약산업 기지 본격 조성

○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국가 백신산업 집적지'로 조성

- 백신 제조시설인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유치(6월 확정), '국제 백신포럼' 개최(6월)

○ 생물의약 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임상 실증시험 지원

- 선진국 동물시험 규제 대응을 위한 '동물대체 시험인증지원센터' 건립(37억원)
- 해외수출용 소재 지원을 위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19억원)

□ 우주·항공산업 도약 지원

○ 고흥 우주센터 등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설계 및 착공, 144억원)
- 2020년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 경항공기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드론(무인기) 산업 기반 마련

-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추진(고흥만간척지 일원, 2개사 참여)
- 규제 프리존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규사업(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 건의

□ 나노·세라믹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첨단 레이저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 구축

- 장성 나노일반산단 내 기업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추진

○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첨단 세라믹 원료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원료소재 개발 및 연관 기업 유치 확대

- 기반 구축(장비 구입, 32억원), 생태계 조성(기업지원, 40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 (여수) GS 그룹 유통망과 '농수산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활용한 우수 농수산품 판로·창업, 웰빙관광 및 바이오 화학기반 육성

- 도내 농수산제품 품평회 개최(200개사 선정), 현장 컨설팅제도 운영
- 우수 관광상품 발굴(30개), 바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 구축('15~'16, 500억원)
- 창조경제혁신펀드 등 투자 펀드 조성·지원(3종, 400억원, 5년간)

○ (광양) 포스코와 연계한 소재·부품기업 육성, R&D 사업 분야 협업

- 입주 및 벤처기업 육성 6개 이상, 중소기업 지원 60건, R&D지원 3건 등

□ R&D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화 촉진

○ R&D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R&D 지원

- R&D, 연구장비, 기술정보 등 포털시스템을 산·학·연 공동으로 운영

○ 기업의 R&D 과제 응모 시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확대(30→50건) 및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20건)

○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 보유 우수 기술 이전 촉진 등 지역 기업 기술력 강화

- 첫걸음 기술개발 41억원, 풀뿌리기업 신규 육성 2개,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30건

5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 성장 잠재력 보유 기업 집중 육성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유망기업,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등으로 단계적 육성

- 유망 중소기업(344개) → 강소기업(전남형 50개, 중기청 15개) → 월드클래스(3개)

○ 기업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펀드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 엔젤펀드(50억원)·빛가람 펀드(130억원) 조성, 기업에 직접 투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확대(2,400→2,800억원), 대출자금 이자 지원(2.5~3.0%)

○ 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 한전·농어촌공사 등 집중구매 제품(전기·기계·에너지) 기술인증 컨설팅 지원
- 도, 시·군 등 25개 기관 구매실적 공시제 지속 추진('15년 75% → '18년 85% 목표)

□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 대형 아웃렛(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지역상권 지원대책 마련

- 대형아웃렛 입점 대비, 인근 지역 소상공인 지원(운영자금 300억원, 이자 9억원)
- 소상공인 아웃렛 우선 입점,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신용보증 공급규모 확대(4,000→4,500억원), '햇살론' 보증재원 29억원 출연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및 문화·예술 융합형 전통시장 육성

- 노후시설 개선(15개 시장), 야시장 등 전통시장 육성(목포 남진, 순천 아랫장 먹거리)

□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 노·사·민·정 공동 협력사업,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9년 연속 노사 상생협력 우수 지자체' 달성,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정착

○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 애로상담 추진

2 친환경·고소득 농수산업 기반 확대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제 확립
-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로 전환
- 농업분야 FTA 대응역량 강화
- 농식품 선진 유통체계 구축
-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외소득 창출
- 저비용·고소득 수산업 기반 확대
- 해양·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
- 농수산 전문인력 육성



2 친환경·고소득 농수산업 기반 확대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제 확립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

○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라 유기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 강화, 유기농 인증면적을 6천ha로 확대('15년 5,380ha)

- 친환경비료·녹비작물 종자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 친환경농업지구 조성(5개소)

○ 유기농업 실천도가 높고 공동체 역량을 갖춘 마을과 섬을 소비자 체험형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3개소)하고 성공모델 확산

○ 현장 중심의 유기농 실천교육(10천명)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2천건) 등 안전농산물 생산 감시체계 구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경영 규모화와 공동 농작업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별 쌀 경영체' 확대 육성(44→77개소)

○ 주산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49지구, 2,630ha)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국비 지원(3년)이 끝난 무농약 인증농가에게 친환경직불금을 지방비로 지속 지원(기준액의 50%)

○ 유기농 실천이 어려운 채소·과수 재배농가에 친환경농업 장려금 인상 지원(ha당 10~30만원)

2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로 전환

□ 농업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수급안정

○ 식량·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 및 신기술 개발·보급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101㏊), 첨단·자동화 비닐온실(4㏊) 신축
-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개발(17작목), 저비용·유기농업 매뉴얼 보급(12작목)
- 선도경영체(22작목, 204호) 및 작목별 시범단지 육성(24개소)

○ 적정 재배 유도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주간·격월 단위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할 농업메신저(40명) 운영

□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확충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제 확립을 위해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

- 축사시설 현대화(200호), HACCP 인증(1,150개소), 첨단 축사관리시스템 보급(210호)
-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50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2,530호)

○ AI 유입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확행하고,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 및 도축장 등 방역관리 강화

○ 곤충·말·흑염소를 미래성장 축산업으로 육성

- 곤충 생산·유통시설(25개소), 승마장 설치(2개소), 흑염소 농가 전업규모로 확대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 육성

○ 한반도의 온난화 진행에 맞춰 새로운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 기술보급 확대

- 아열대 작물 보급(500㏊), 참외 특화단지(20㏊) 및 고품질 과일생산단지(200㏊) 육성

○ 시금치, 갓 등 비교우위 토종작목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 등록 등 지적 소유권 확보

3 농업분야 FTA 대응역량 강화

□ FTA 발효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

○ 동시 다발적인 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이행

- 농업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90→95%),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2.5→2.0%)

○ 쌀 가격안정 및 농·축산물 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금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밭 직불금을 지목과 품목에 제한없이 지원하고, 재해보험 지원 확대(50개)
- 가축재해보험(700호), 녹색축산육성기금(154억) 및 사료 구매자금(500억) 저리 지원

□ 농·축산물의 수출기반 확충

○ 농식품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 농·축산물 및 전통식품 생산·가공기반 구축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12개소) 및 우수 전통식품의 산업화 추진(7개소)
- 도축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 가능한 축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1개소)

○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과 농가소득 효과가 큰 유기농 쌀·김치·삼계탕·한우고기 등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 집중 육성

- 국제식품박람회 활용 홍보, 김치 수출 전용라인 설치, 삼계탕 수출작업장 지원 등

□ 중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

○ 한·중 FTA 활용,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대도시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장 개설

- 농식품 판매장(2→3개소), 온라인 식품관(1→2개소), 칭다오 aT물류센터 내 홍보관 개설

○ 중국 성장 둔화 및 일본 엔저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 동남아·중남미 등 시장개척단 파견(8회), 해외박람회 참가(6회) 등

4 농식품 선진 유통체계 구축

□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도권 및 타 시·도 소재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납품 확대

- 학교급식 농산물을 친환경 식재료로 대체 지원(2,628개교, 292천명)
-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점유율 확대(55→56%), 타 시·도 학교급식 등 유기농 쌀 공급 확대(137→1,000톤)

○ 소비자가 전남 농·축산물을 보다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 납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판촉활동 추진

- 대형 유통업체 납품(78→83개 업체), 친환경농산물 가맹점(121→126개소)
- 남도장터 입점(219→230개 업체), 대형 오픈마켓 입점(7→9개소)

□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직거래 확대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규모 아파트, 지역 축제 등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해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340회)

○ 지역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9→20개소), 참여농가에 대한 출하관리 등 교육 강화

○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다품목 제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철 농산물별 꾸러미 생산자 조직 육성(18개소)

□ 생산자 맞춤형 산지 유통기반 조성

○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공동 생산 및 출하, 마케팅 시스템 구축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11개 시·군), 농산물 마케팅 지원(7개 시·군)

○ 농산물 저온저장고(300개소), 산지유통시설(2개소) 등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고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 지원

5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외소득 창출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 종합개발 추진

- 읍·면 중심지를 경제·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50지구)
- 지역 개발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권역·마을 단위 종합개발(49지구)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민 주도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 주민 주도형 시·군 창의사업(9지구),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96지구)
-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신규마을(11지구) 및 소규모마을(35지구) 조성

□ 농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 농촌과 산촌의 자연경관을 지역민의 소득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고, 마을 소득기반 조성

- 경관작물 재배(6,600ha), 영광 찰보리지구를 경관농업 우수모델로 육성
- 마을 숲 복원 및 밀원수 식재로 양봉과 연계한 복합소득마을 조성(17개소)

○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제고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 청소년 대상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인성학교 인증 확대(8 → 12개소),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취득(10개 마을)

□ 농업유산 발굴·육성

○ 농업·농촌 문화의 보전·계승과 농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수 농업유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

- 보성 계단식 차밭, 화순 봇도랑과 다랑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남도대표 산림문화자산' 지정 확대(4 → 7개소)

6 저비용·고소득 수산업 기반 확대

□ 양식어업의 생산비 절감

○ 새로운 양식기술 도입과 내수면 양식 융·복합화 추진

- 김·미역 등 해조류 종묘생산시설(2개소), 대규모 최첨단 양식단지('15~'17)

○ 육상 양식장의 고효율 에너지 절감장비(11개 시·군, 120억원)와 노후 어선의 유류절감형 장비 지원(16개 시·군, 49억원)

□ 수산가공식품 육성기반 구축

○ 목포 북항에 생산·가공·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14~'18, 목포수협)

○ 고부가가치 가공수산품 생산 및 선진 유통시설 확충

- 산지가공시설(22개소), 저온저장고(173개소), 다기능 위판장(2개소) 등

○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유통체계 확립

- 마른김 가공용수 위생처리시설 지원(47개소), HACCP시설 지속 확충(5개소)

○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 소금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생산 기반 구축 및 가공·저장시설 확충 등 염전환경 개선

- 염전바닥재 개선(302ha), 자동채염기 보급(470대), 가공·저장시설 확충(5개소)

□ 자연재해에 강한 수산업 육성

○ 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해 양식시설을 현대화(200개소)하고, 노후 목재 가두리를 내파성가두리로 교체(53억원)

○ 재해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및 영세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21개 품목) 및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간 이용으로 어장바닥 오염이 심한 양식어장의 정화사업 추진(3,100ha)

○ 시·군별 청소 책임제, 1사 1해변 지정 등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신안 안좌, '17년 준공)

○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 및 연안어장 복원, 수산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관리 추진

- 인공어초시설(500ha), 수산종묘 방류(25백만미), 연안어선 감척(100척)

□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 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법인 5천만원, 개인 3천 5백만원) 및 폐업어가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어가당 50만원), 어업재해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영세한 맨손어업 및 종묘생산어가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3→2%) 및 이자차액 지원(20억원, 1%)

□ 수출 전략품종 연구개발 강화

○ 자생 또는 양식하는 품종 중 수출 국가 선호어종을 중심으로 신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 보급

- 김·연어과어류·해삼·토종꼬막 등의 우량품종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 엘리뇨 등으로 인한 바다수온 상승에 대비해 고수온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미래 고부가가치 품종 연구개발 강화

- 능성어 등 바리과 어류·해만가리비·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 지역 특화품종*의 명품화·산업화를 위한 생산·가공기술 개발

* 넙치, 전복, 낙지, 민어, 가리맛조개, 돌김, 주꾸미, 갯벌 굴, 뜸부기, 굴비

7 해양·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 산업화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수산식품 및 기자재산업의 집적화 추진

- 해조류 신품종 보급센터 준공('17. 12.), 김 산업 연구소 및 수산 기자재산업진흥원 설립 건의

○ 목포 대양산단에 수출 가공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차가공 식품단지를 조성,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항만 · 물류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광양항을 세계 10위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 시설 보강 및 자동차 환적 중심항만으로 육성

- 24열 크레인 3기 설치, 3-2단계 4선석 자동차부두 전환

○ 목포항을 근대 역사문화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 개발, 중국 및 동남아 교역 거점항으로 육성

- (신항) 자동차, 철재 / (북항) 수산 / (내항) 국제 마리나 / (남항) 해양관광

○ 태풍 등 자연재해에 강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다기능 어항 개발

- (무역항·연안항)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진도항·홍도항 개발 등 4개소
- (지방어항) 방파제 등 기반시설 확충 11개항, 노후어항 시설 보수 5개항

□ 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소형어선의 안전한 접안 등을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 방파제, 마을회관 등 지원(10개 권역), 다목적 인양기 및 부잔교 설치(205억원)

○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 및 소유 차량 운임을 지원(7개 시·군, 110억원)하고, 생필품 운송 물류비 지원(9개 시·군, 14억원)

8 농수산 전문인력 육성

□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후계인력 양성

○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 후계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240명), 신지식 학사농업인 지원(30명)
- 전남생명농업대학 운영(3과정, 75명), 가업승계농 창업교육(25명)

○ 농업·농촌 활성화에 앞장설 선도농업인 조직 육성

-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334명) 및 농업경영자 과정(140명) 운영
- 분야별 선도농업인 협의체(130명) 운영 활성화, 유기농·식품 명인 육성(41명)

○ 농업 전공 학생, 창업농 등 젊은 인력의 신규 창업 지원

- 우수 청년인력 신규창업 안정자금 지원, 농고·농대생 창업인턴제 운영(30명)
- 맞춤형 창업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35명)

○ 미래 어업·어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장년층 및 귀어업인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산벤처대학 운영(95명),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운영(10명)

□ 귀농·귀어·귀촌인 적극 유치

○ 도시민에게 귀농·귀어·귀촌 정보를 관심단계부터 정착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및 '귀어·귀촌 현지 상담실' 운영

○ 귀농·귀어·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 및 개별 특성에 맞춘 창업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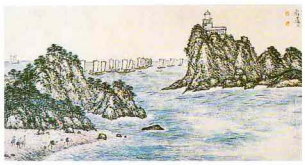
- 농·어업창업자금(3억원, 연리 2%) 및 주택구입자금(50백만원, 연리 2%) 융자
- 귀어·귀촌인 창업 유도를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1인당 6백만원)

○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영농체험 기회 제공 및 성공사례 홍보

- 서울특별시의 '서울농장 조성'(함평), 귀농·귀촌 경진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3 매력있는 관광·문화 전남 실현

- 고객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객 유치 마케팅·홍보 강화
- 문화 융성 및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도민 친화형 스포츠 산업 육성
-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 만들기
- 2대 브랜드시책 본격 추진








3 매력있는 관광·문화 전남 실현

매력있는 관광자원과 상품 개발로 관광객 5천만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고 문화예술 진흥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고객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

○ 지역의 사찰·유적지·숲·섬 등을 활용해 교육과 체험, 레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관광단지(10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16개소), 문화관광자원(38개소) 개발

○ 문화·역사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걷는 여행길' 조성 및 브랜드화

- '남도 명품길' 조성(해남 달마산 둘레길, 강진 다산초당~해남 대흥사)
- 이미 조성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13개소) 재정비, 관광객 걷기대회 개최

□ 지역 특화 관광상품 운영

○ KTX,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관광지 순환상품 운영

- 생태·섬 등 남도여행 으뜸상품 운영,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코스 다양화
- KTX를 활용한 남도여행 할인꾸러미 상품을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 개발

○ 수학여행, 청소년 수련활동, 세미나·회의 등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융복합형 상품 개발·운영

-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배치(43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회의·숙박·휴양을 결합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6개 행사, 1만명 유치)

2 관광객 유치 마케팅·홍보 강화

□ 친절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

○ 지역관광진흥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 '도·시군 지역관광협의회' 결성, '지역 관광두레 청년리더' 양성 확대(6→10명)

○ 관광지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조성(2개소)하고, 음식점 밀집지역을 '1시군 1남도음식거리'로 조성(매년 4~5개소)

○ 문화·관광시설 안내판(6,434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숙박·음식·쇼핑·교통부문 종사자 친절을 위한 'K-스마일' 운동 적극 전개

□ 해외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체계 본격 가동

- 전남문화관광재단 출범(3월), 중국 거주자(2명)를 관광마케팅 협력관으로 활용
-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2개)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통역가이드 지원

○ 중국·네덜란드 등 역사적 교류 인물과 연관된 외국 인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복원해 관광코스로 개발

- 화순 주자묘·정율성 유적지·강진 하멜 트레일 등 상품화,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 공세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 연간 6백만명 이상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스타, SNS 등을 활용한 중국 마케팅 활동 강화

- 한류스타(연정훈 등), 중국 대형 여행사 포털사이트 등 활용 현지 홍보
- 무안공항 항공노선 확대(14→20개 지역), 국제 크루즈선 유치(10항차, 2만명)

○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맞춤형 상품 집중 홍보

- 무안-기타큐슈 정기성 전세기 노선 개설, 홍콩·싱가포르에 테마상품 홍보

3 문화 융성 및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우리 선대들이 가꾸어 온 남종화, 판소리, 정자·정원 등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재창조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양화 비엔날레 창설, 한국 전통정원 조성 등 선도사업 우선 발굴 추진

- 전문가 학술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및 추진계획 확정(7월까지)

□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도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 광양에 도립미술관 건립('17.1월 착공),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 설치(9월 개관)
- 지역예술단체 창작활동(350여개 단체),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8개 단체) 지원

○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기회 제공

- '작은 영화관' 조성(6개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50회), 통합문화 이용권 제공(15만명)

□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여 가치 제고

- 전통 산사(선암사·대흥사), 서원(필암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438건),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실시

○ 오감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실감미디어기반 조성센터 활성화

- 혁신도시 내 기반센터 건립(5월 완공), 관련 기업 집적화 및 인력 양성
- 기반센터 내 지역 특화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으로 게임산업 육성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로 청년 일자리 창출

- 혁신도시 이전 ICT 기관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4 도민 친화형 스포츠 산업 육성

□ 전남체육 경기력 향상

○ 전국체전 한자리 수 등위 회복을 위한 우수 선수·체육팀 육성

-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 확대('15년 27팀 → '16년 30팀 → '18년 33팀)
- 행정기관 직장팀은 지역별로 특화종목 매칭, 육성(목포 : 육상·하키, 여수 : 요트 등)

○ 체육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3월)하고, 99개 산하단체를 69개로 조정

□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 전문체육시설은 경기장이 없는 종목 위주로 우선 건립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 여수 진남수영장 등 전문체육시설(17개소),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11개소)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한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41명), 생활체육동호인 육성(160천명) 및 대회 개최(140개)

□ 스포츠 마케팅활동 적극 전개

○ 스포츠 인프라·비교우위자원을 활용,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 전지훈련(4,500개팀 1,100천명), 전국대회(200개 대회) 유치
- 맞춤형 정보 제공, 스포츠과학센터 운동처방 등 전지훈련 최적지 입지 강화

○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내·외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해변승마, 수상레저 등 레저스포츠대회 유치(26개)
-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8월, 1천여명), 국제철인 3종경기(9월, 1천여명)

○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민을 위한 레저공간 조성

- 청소년 단체 수련 프로그램 운영, 레이싱팀 캠프 유치, 족구장·농구장 등 레저공간 조성

5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 만들기

□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개선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개선사업 추진

- 마을 안길정비 등 우수 경관마을 육성(8개소),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3개소)
- 범도민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740명) 운영 활성화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전문가 심의 강화

○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심환경 개선

- 상가 밀집지역 노후간판 개선, 노후·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강화
- 찾아가는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및 우수 옥외광고물 공모전 개최

□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

○ 지역 특산품,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보급

-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통합전시회 개최(2016 생명의 땅 친환경디자인전)
- 통합브랜드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개발, 개발된 브랜드 지식재산권 등록 관리

○ 지역 생산제품 활용 촉진을 위해 도내 우수 농수축산물 가공품, 마을기업 등에 대한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 개최

○ 전남의 주요 산업에 디자인을 접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16.5.5~5.29 / 나주시 일원 / 관람객 88만명(외국인 4.4)

○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단(단장 : 행정부지사) 구성, 전 실국 총력 지원

- 박람회장 조성, 문화행사 운영, 국내·외 설명회, 학술 토론회 등

6 2대 브랜드시책 본격 추진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 2015년에 선정된 6개 섬* 소득연계사업 본격 추진(48억원)

- 폐교활용 숙박·식당·카페 운영, 둘레길·탐방길 조성, 마을기업 설립

* 낭도, 연홍도, 가우도, 소안도, 관매도, 반월·박지도

○ 2016년 신규사업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16억원)

- 2개 섬(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 섬별 자원조사, 주민역량 교육 등

○ 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행사 개최기반이 갖춰진 섬부터 '가고 싶은 섬' 오픈 행사 개최(4~10월)

- 연분홍치마 **연홍도** 국제아트프로젝트, 낭만 **낭도** 가면카니발 등

○ 섬 DB 및 홈페이지 구축, 초고속 인터넷망 및 무료 Wi-Fi망 확충 등 섬 가꾸기 사업의 입체화·과학화 추진

□ '숲 속의 전남' 만들기

○ 지역 내 주요 도로를 '감성을 품은 가로수 길'로 조성·관리

- 국도 77호선을 정도(定道) 1000년 기념 가로수길로 조성(20㎞)
- 목포~광양 간 연계도로(33㎞), 시군도·마을길·바닷길까지 식재 확대

○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매력있는 '지역 대표 경관숲' 조성

- 나주 지석강 십리송길(50ha), 정남진 푸른숲(300ha), 섬지역 산림가꾸기(127ha) 등

○ 경제수 및 특용수 식재로 돈이 되는 '소득숲' 조성(2,260ha)

- 견과류, 밀원수와 지역대표 산림자원인 편백, 황칠, 동백 등 식재

○ 자율적 숲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참여 숲 조성 및 숲 돌보미 확대

- 주민참여숲 조성(39→85개소), 숲 돌보미 참여단체(247→300개 단체)
- '**범도민 나무기부운동**'을 통해 사회공헌형 숲 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4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SOC 확충

- 지역 성장거점 조성
- 광역 교통망 지속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
- 산업단지 활성화



4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SOC 확충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의 지속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지역 성장거점 조성

□ 빛가람 혁신도시의 명품화

○ 공공기관장협의회 및 지역발전 분과위원회(5개 분과)를 본격 가동,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도시 기반 인프라 적기 완공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석전교차로 입체화(12월 완공) 및 북측 연결도로 신설(0.98km, '18. 12. 완공)
- 클러스터 용지 소필지화에 따른 도로·상수도 등 추가시설 완공(1월)
-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빛가람 전망대 완공(3월)

○ 주거·교통·교육 등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여건 조성

- (공동주택) 5,468세대 공급 (교육기관) 2개교(유 1, 초 1) 개교
  (교 통) 혁신도시~광주간 버스 증차(252 → 314회), KTX 나주역 정차 확대(13 → 20회)
  (공공시설) 빛가람 파출소 준공(12월), 호텔·종합병원 조기 착공('17) 유도
  (환 경)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34억원),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70천㎡, 120억원)
  * 한방병원 등 빛가람 캠퍼스 조성, 관광호텔 건립 MOU 체결(1. 26)
- 난개발 방지 등 도시미관 정비, 생태경관 조성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TF**(3팀, 49명) 운영

○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연관기업을 집적하여 산업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4개 지구별 기업·대학·연구소 우선 유치 및 협력시스템 구축
- 산학연 클러스터 잔여부지(144천㎡) 조기 분양 추진(3월)
-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 확보 추진

□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가시화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및 매립공사 착수('16년 하반기)

- 공유수면 토지화로 원형지 분양, Sub-SPC 등 실수요자 투자유치 추진

○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영암 삼호읍 ~ 해남 산이면, 10km)는 '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 영암호 횡단교 교각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 추진('16년 500억원)

○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구별 선도사업 본격 추진

- (구성지구) 레저주택 2,000세대 및 골프장 36홀 착공('19년 준공), 사유지 보상('17년 완료)
- (삼호지구) 골프장 45홀 조성('16년 개장), 내부진입도로 1.75km 개설('16년 준공), 골프장 18홀 착공('17년 준공), 골프러닝센터 착공('17년 준공)
- (삼포지구) 튜닝부품 시험평가동(7월 준공)과 기업지원동(12월 준공) 등 인프라를 활용, 기업유치 본격 추진(타깃기업 50개 추가 발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유관기관·단체 및 해외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입주기업 CEO 정기 파트너십 포럼 개최
- 해외 투자유치자문위원 확대(13 → 25명), 해외 투자유치 IR(16회)

○ 광양만권 기반산업인 철강·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산단 개발

- (세풍산단) 외국인부품소재 전용산단 지정 추진, 바이오 소재 패키징산업 기능 집적화
- (해룡산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 (황금산단) 철강·비철강 원자재 등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 착수

○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개선 및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 여수 화양지구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시행자 선정
-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 국제비즈니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투자 의향기업 발굴

2 광역 교통망 지속 확충

□ 고속도로 · 철도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광주~성전, 52km) 착공('16년 하반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은 광주송정~고막원 구간 우선 착공하고,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채택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

○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건설은 전체 공사 본격 추진('20년 완공 목표)

○ 수서발 KTX 개통(8월)에 맞춰 호남선 편도 24회 증편운행 추진

* 전라선 KTX 증편과 용산~서대전~익산~목포 구간의 노선 총량 증편을 위해 광주·전북, 충청권 시·도와 공동 대응 노력 병행

□ 공 항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40만명을 목표로 중국~무안~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정기노선과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 중국·동남아·일본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전세기 적극 유치

○ 전남의 3번째 공항으로 흑산공항 건설(활주로 1,200m, 1,835억원)

- '20년 개항을 목표로 '17년 착공, 개항 대비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지역 도로망, 연륙·연도교

○ 국도 · 지방도 등 도로망을 정비하고 위험·굴곡도로 개선

- 국도(35개 지구, 4,123억원), 국가지원 지방도(10개 지구, 1,204억원), 지방도(22개 지구, 730억원) 확·포장, 마을 앞 보행자도로 및 갓길 정비(70억원)

○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3개 지구 추진(암태~추포 등 '16년 147억원)
-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18년 준공('16년 677억원)
- 국도 77호선 등 7개 지구 추진(여수~고흥 등 '16년 1,188억원)

* 적금~영남, 신지~고금은 '16년말 완공 예정

3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

□ 낙후지역 개발 및 행복생활권 구축

○ 낙후지역의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추진(함평 등 10개 군, 472억원)

○ 영산강 고대문화 유적지 연결을 위해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나주 삼영동 ~ 무안 몽탄면 34㎞, 390억원)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생활권 선도**) 인접 시·군 간 연계협력, 14개 사업 64억원
- (**새뜰마을**)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12개 사업 93억원
- (**창조지역**) 지역의 유·무형 자산 활용 문화욕구 충족, 10개 사업 18억원

□ 도시재생사업 추진

○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16년 123억원)

- (목포)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200억원)
- (순천) 향동·중앙동 일원 노후 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조성('14~'17, 200억원)

○ '16년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2개소(광양·나주)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4월)하고, 설계 착수(6월)

□ 주거용지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 쾌적한 주거용지 개발 공급(15개 지구, 9,410천㎡, 계획인구 99천명)

- (준공) 목포 백련지구 등 4개 지구 (추 진 중) 남악 오룡지구 등 4개 지구
  (착공) 순천 용당지구 등 5개 지구 (실시계획) 여수 만흥지구 등 2개 지구

○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상·하수도, 소공원, 마을회관 건립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6개 시·군, 134억원)
- 농어촌 주택개량 1,400동, 빈집 정비 1,100동,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00동

4 산업단지 활성화

□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조 성 현 황

- 국가산업단지 : 5개소(완료 2, 조성 중 3), 174백만㎡, 분양률 99.5%
- 일반산업단지 : 32개소(완료 11, 조성 중 17, 계획 수립중 4), 66백만㎡, 분양률 74.0%
- 농 공 단 지 : 65개소(완료 52, 조성 중 13), 11백만㎡, 분양률 92.5%

○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 활동 적극 지원

- 목포 대양산단 등 5개소(7,787㎡) 준공, 순천만 도시첨단산단(181㎡) 신규 지정
- 공업용수 관로 매립(담양산단 등 3개소), 진입도로 개설(광양 세풍산단 등 6개소)
- 빛그린 국가산단 배수지 건설 지원(24억원)
- 여수국가산단 공장 증설 지원(GS칼텍스 등 6개사, 662천㎡)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등 5개소(801천㎡) 신규 조성
- 여수 화양 농공단지 등 13개소 노후시설 개·보수(38억원)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용지 공급과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유해업종만 입주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 유도 등

□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혁신역량 집중

- (대불산단) 근로자복지센터, 혁신센터, 공동물류장 등 5개 사업
- (여수산단) 혁신센터, 물관리센터, 산학융합지구 등 3개 사업

○ 산단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육성

- 3단계 사업기간('15~'19) 동안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9개 단지, 75억원)

○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지역산업단지 DB 및 관리시스템 운영

- 산업단지(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관리, 통계정보 산출 및 활성화 대책 수립

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 체계적인 도민안전망 구축



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전남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전하고, 체계적인 도민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1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원인 화석연료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천연가스 자동차(40대), 전기자동차(162대), 전기 이륜차(15대)

○ 대기오염물질(NOx) 배출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 목욕탕,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3개 시·군, 13기)

○ 도민에게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 예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측정망 구축·운영(5개 시·군, 19기)

□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3대강(섬진강, 영산강, 탐진강) 수질개선 추진
- 비점오염 저감사업(3개소), 환경기초시설 등 지속 확충(87개소)

○ 수돗물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충
- 상수도 보급(106개 지구), 노후 수도관 교체(418km)

○ 자연의 자정능력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생태하천·습지 조성
- 생태하천 복원(15개소), 주암호 연꽃단지 등 생태습지 조성('16~'17)

□ 효과적인 환경오염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4,494개소) 점검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여수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농촌 지역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9개소), 슬레이트 지붕 철거(2,400동),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23억원)

2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신 기후체제(2015 파리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과 연계, 우리 도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도민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

-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 중심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전개

* 전기, 수도, 가스 절약 가정에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보전

○ 전남의 대표 생태자원인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안 생태계 보전과 관광 자원화 추진

- 보성 벌교갯벌의 도립공원 지정(1월), 무안·신안 갯벌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
- 순천만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설치(순천)

○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 자연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고, 비교우위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 신안군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철새도래지 및 멸종위기 생물 보호
- 생태탐방로 조성(4개소, 88km), 생태공원 조성(15개소)

□ 깨끗한 전남 만들기 추진

○ 범 도민의 자발적 청결운동 참여 유도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홍보·캠페인 전개 병행)

○ 시·군 민간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새봄맞이, 명절, 피서철, 단풍철 등 특정 시기별로 맞춤형 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와 관리책임자 지정, 시·군 관리실태 평가 등을 통해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

3 체계적인 도민안전망 구축

□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기관별·부서별로 부여된 임무 수행이 즉시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구축 및 재난대응수칙 작성

- 각종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비사항과 문제점 지속 보완·정비
- 수첩식·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대응수칙 보급

○ 대한적십자사 등 16개 유관기관·단체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피해주민·응급복구 지원

- 재난예방·복구활동 참여, 비상연락체계 정비, 주기적 워크숍 실시

○ 방범, 주차관제, 재난·재해 등 기능별·부서별로 분산 관리중인 CCTV 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15년까지 14개 시·군 구축 완료, '16년 목포·화순 구축(27억원)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노후 교량, 건축물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해 재난 유형별로 특별 관리하여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전문가와 합동점검 후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등 중점 관리(5,573개소)
- 재난 위험시설 31개소(D등급 30, E등급 1)의 연차적 보수·보강 추진('16년 9개소)

○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및 피해 저감대책 마련

- 소하천 정비(71지구), 재해위험지구(26지구) 등 161지구 정비(1,666억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등)

○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교육 강화

-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5 → 16개소)
  * '16년 : 3개소(무안해상안전체험관,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전남안전교육센터)
-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6만명)

□ 소방 안전망 확충

○ 노후 소방차량·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소방관서 지속 확충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56대),소방장비 확충(6종, 14,236점)
- 고흥소방서 신설, 119 구조대 설치(장흥·곡성), 안전센터 설치(남악·봉래)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활동 여건 조성

-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차고탈출 20/30' 훈련 및 소방전술 경연대회
-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를 위한 도민 참여훈련(분기별 1회, 민방위 훈련 연계)

○ 섬 지형에 적합한 초기 화재 진압체계 구축

- 산불진화차 및 소방용 삼륜자동차 배치(40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33개소)
- 섬 지역 '주민 119 안전기동대' 발대 확대(20개대/100가구 이상)

□ 지역안전지수 개선

○ 지역안전지수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취약 시·군 컨설팅, 불합리한 지수산정제도 개선 등 강력한 개선대책 추진

○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실시

- '18년까지 273명 감축(교통사고 100, 화재 6, 자살 94, 감염병 73)

○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배려의 교통문화 실천운동' 추진

- 도·시군 안전·교통부서 합동 대책협의회 운영, 교통안전교육 확대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 원전안전 감시·감독에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전 소재 시·도와 공동 대응

-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와 연계

○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 지속 확충

- 무인 자동 환경방사선 감시기 확충(10개소), 주민보호용품 보급(71천 세트)

○ 환경방사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스마트폰 앱 개발로 실시간 정보 공유
- 주민대피 훈련, 지자체 방재요원 교육(150명) 및 마을 순회 주민교육

6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 저출산 ·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
-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



6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 농어촌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 신생아 양육비(16천명),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분만·외래 산부인과 설치(2개소)
- 공공기관 활용 '착한 결혼식' 지원, 일·가정 양립 실천 기업 확대(매년 10개소)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보육 기반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년 3~4개소), 전남 인증어린이집 지정·운영(50개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아동 방과 후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전남형 노인복지시책 강화

○ 노인들의 공동 숙식이 가능한 공동생활의 집을 확충(3개소)하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50→150개소)

○ 유형별 노인 일자리를 제공(25천명)하고, 1시·군 1시니어 클럽 확대(4→10개소)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면(面)지역에 농어촌 공중목욕장을 운영(119개소)하고,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재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44천명) 강화

○ 광역치매센터(순천)를 중심으로 치매예방부터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증치매노인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보급(100대)

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현

□ 도민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 버스 미운행 농어촌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확대 운영(14개 시·군, 362개 마을 → 19개 시·군, 645개 마을)

○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 참여 확대를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지원 확대(506 → 759개 마을)

○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가칭)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추진

- 일수대출 금리인하, 생계형 채무자 악성채권 소각, 생활임금제 도입 등

□ 취약계층 돌봄 및 자립 지원

○ 장애인의 이용시설 접근성 제고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장애인편의시설(3,000여 개소) 모바일 앱 보급,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2개소)
- 저상버스(45대) 및 장애인 콜택시(14개 시·군, 20대) 도입 운영

○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자립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제공(1,279명), 장애인 연금·수당 지원(47천명)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8,281명)

○ 결혼이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 확충

- 다문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3개소), 이중언어 강사(22명) 및 모국어 상담원 양성(30명)
- 임산부·신규 전입자 등 탈북 취약계층에게 출산용품 및 생필품 지원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23개교) 및 농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7개교) 지원
- 농촌유학센터 운영 확대(4 → 6개소), 다자녀 가정 체험학습·교복 구입비 지원

○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면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중·고등학생 대상 인성교육 지원, 서울에 제2남도학숙 건립(604명, '17. 12월 준공)

3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의료 취약지 응급 의료여건 개선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 섬 지역 거점 보건지소(2개소) 및 헬기착륙장(8개소) 확충, 병원선(2척) 운영
- 진료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은퇴의사 활용, **행복의원** 운영(2개소, 12천명 진료)

○ 도내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목포에 이어 동부권(순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

□ 예방의료 서비스 강화

○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본부' 유치('16년 공모),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50병상) 및 역학조사 전담인력(2명) 확충

○ 도민의 질병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815천건)과 건강검진(366천명), 금연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최근 급증하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센터(나주)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자살률 감소(인구 10만명당 29.4→28.2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9개소), 알코올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2개소)

□ 통합의료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양·한방, 보완대체의료 등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R&D 사업 추진기반 확충

- 환자중심의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의료센터 개소(8월)
- 한약진흥재단 전남분소 운영을 통해 한의약산업 육성기반 마련

○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 통합의학 중심지 위상 확보

- '16. 9. 29~10.31/장흥군 일원/ 관람객 95만명(외국인 4.7)

4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청년·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4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3개소)
- 여성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 취·창업 지원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률 상향(22→32%), 여성정책서포터즈단 운영(95명)

□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문화·언어 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양국 문화의 차이 이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결혼이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 한부모 가족 및 위기·취약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시설 운영(5개소)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확대(1→9개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자립기반 확충

- 전남-경북-어린이재단의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도별 1,004명 후원)
-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52개소),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3백만원/인)

○ 아동보호 전문기관(3개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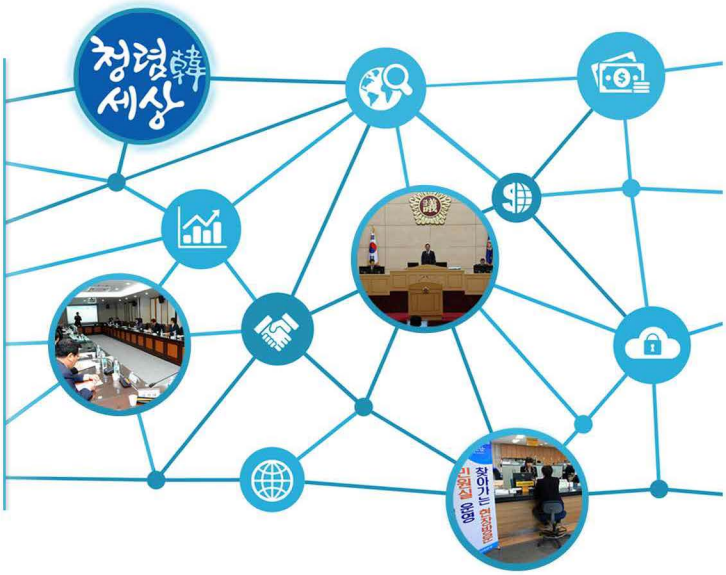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개소) 및 청소년 쉼터(5개소)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확대 운영(15→16개소)

7 소통과 신뢰의 선진 도정 구현

- 지역 간 상생·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실천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7 소통과 신뢰의 선진 도정 구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 지역 간 상생·협력 확대

○ 호남권, 경북, 서울시와는 상호 합의한 상생 협력과제를 내실있게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경기도와는 2월중에 상생 협력과제를 확정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 본격 실천

□ 남북교류 협력사업 토대 마련

○ 함경북도와의 땅끝협력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민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확대

○ 안정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28→50억원) 및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 국제교류 협력관계 증진

○ 국가별 특성에 맞춰 박람회, 투자 IR, 관광홍보, 문화행사 등 교류 강화

- (**수출마케팅**) 미국, 프랑스 (**투자 IR**) 일본, 중국 (**문화·관광**) 중국, 카자흐스탄 등

○ 신규 우호교류지역 발굴 및 기존 우호교류 지역의 자매결연 확대

- 우호교류 지역(28→31개), 자매결연 지역(4→6개)

○ 인접국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행사 참가

- 한·중 지사성장회의(5월, 인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10월, 일본)

2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실천

□ 도민 밀착행정 강화

○ 도지사의 시·군 현안 사업장 방문과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 확대(연 1회→수시)로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출향인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출향인과 출향인 2세 초청 '내 고향 바로 알기' 행사 개최

○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부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 확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팀 신설, 행정지원협의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신설 추진('17. 7월 개소)

□ 도의회와 협력체계 유지

○ 도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 의장단과 정례 회동(분기 1회), 실국-상임위원회 간 수시 간담회 개최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카드화 관리

○ 도의원 요구자료 등 관심사항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공 및 지역행사 공유 등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 도민평가단(50명)을 활용, 도지사 공약 및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평가 실시(연2회) 등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환류 강화

○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테마별 도민 제안을 확대(1→2회)하고, 명예기자 카페 운영

3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 교부세 감소 추세에 따라 비교우위 산정지표를 발굴·건의하고,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으로 예산절감

○ 자금 운영 및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긴급재정관리제도'*시행에 대응, 시·군 채무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활용, 고금리 금융기관 지방채 저금리 전환 추진

*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정부·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하는 제도

□ 지방재원 확충 노력 강화

○ 세입목표(1조 800억원) 달성을 위해 자체 세수확충 노력 강화

- 렌터카(15천대) 법인 등록, 기업 유치, 신세원 발굴 추진
- 도 및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확대·운영(3개반 32명 → 4개반 42명)

○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한발 앞선 국고예산 확보활동 전개

- 중앙부처 수시 방문,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현안사업 정보 상시 공유

□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

○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기관장 성과평가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기본연봉 차등 지급 및 기관장 연임·해임 기준으로 활용

○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보수규정 정비 및 임금피크제 도입('16년까지, 19개 기관)

4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구현

○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공익을 위한 적극업무처리 면책,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처리 엄단
-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고충 해결

○ 조직 내부 역량 강화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공무원 연구모임 확대(28→40팀), 공무원 필수역량 교육과정 운영(10개 과정)
- '이 달의 칭찬 공무원' 선발·표창 및 '칭찬릴레이 코너' 운영

□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청렴도 하락으로 실추된 도청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자 의식 개선 강력 추진

- '밝은 도청 만들기 추진본부' 구성·운영,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상황 점검
- 부패 취약부서 위주 상시 감찰을 위한 '상시감찰 T/F' 구성·운영

○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 직원 적재적소 배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제 확대(26→35개)
- 당해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의무순환 전보, 인사·예산부서 순환근무제 도입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직자상 확립

○ 공직자의 재능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 전남도청 자원봉사단('15. 12월, 90명) 발족, 사회복지시설·오지마을 등 순회 봉사활동 추진(월 1회)

○ 전남도청 공무원직장노조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 전개

- 직원들의 봉급 끝전을 모아 '사랑나눔 행복상자 만들기', '시설 김장김치 전달' 등 이웃 사랑나눔 실천